10.15686/fkl.2025..64.374

남태령 광장의 인권 투쟁

권창규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목차

1 서론: 광장이 된 남태령
2 광장의 주관자 되기
3 인권을 상호학습하는 광장 민주주의
4 결론: 남태령 광장의 연대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장정치에 대한 문화연구로,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열린 대중집회를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광장정치로 주목하여 남태령 집회의 자유발언을 논의했다. 농민들에게 도시민이 연대하여 정치사회적 주체로서 시민된 권리를 주장한 사건은 농민운동사에서 기록될만한 승리요, 2024년 광장정치의 분기점이 됐다. 무박2일 간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농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은 존재 그 자체로 환대받고 동시에 다른 소수자들을 환대함으로써 광장의 주관자가 됐다. 본고는 자유발언의 형식과 내용, 의미를 살펴 정체성의 정치에서 출발하여 농민을 비롯한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연대하는 광장의 민중연대 양상을 주목했다. 자유발언에서 인기리에 반복된 관용구는 '차별받는 여성, 성소수자와 노동자, 농민, 이주민,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희망한다.'는 것으로, 광장이 요구하는 바가 민주주의라 한다면 인권의 민주주의로 집약할 수 있다. 농민과 여성, 성소수자를 비롯해 많은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양상은 휴전 상황의 징병제 사회에서 정상(적 남성)성이 좁게 구획되어 왔으며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불안과 맞물려 혐오의 폭력으로 쉽게 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동시에 45년만의 계엄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전개된 인권 투쟁은 '누구는 나중에'로 미뤄두는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갱신하는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요청한다.

국문핵심어: 남태령 집회, 광장정치, 자유발언, 정체성 정치, 인권, 민주주의

1 서론: 광장이 된 남태령

본 연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열린 대중집회를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일상의 정치가 열리는 광장의 정치로 주목한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명명된 권력의 사유화가 보여준 민주주의의 위기가 박근혜 탄핵 광장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면, 2024년 탄핵 광장은 45년 만에 계엄이라는 비상시의 독재정치[1]를 선포(2024.12.3.)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서 촉발됐다. 근대

아시아 민중투쟁의 선두에 속했던 1919년 3·1운동의 광장 민주주의가 있었던 이래로[2] 군사독재정권의 한국 현대사를 거치면서 광장정치의 문화는 전개되어 왔다. 군사독재 시절 최루판과 쇠파이프의 살인 진압에 맞서 화염병과 돌멩이를 들었다면, 촛불은 민주화 이후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됐다. 촛불은 2002년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진 중학생의 추모집회(효순·미선 추모제)에 처음 등장한 후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의 항쟁이었던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도 등장했다. 촛불문화제 형식의 대중집회는 춤과 노래, 자유발언, 공연 등의 '오락 커뮤니케이션' 양상으로 변화해왔으며,[3] 2024년 촛불을 대신한 응원봉 상징이 주목을 받고 있다.[4]

본 논문은 2024년 광장정치에서 분기점이 된 남태령 집회를 다룬다. 남태령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공간으로 꼽힌 바 있으며, 집회를 주도했던 농민들도 '남태령 대첩'으로 호명하며 농민운동사에 기념할만한 승리로 회고했다.[5] 집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선 '전봉준투쟁단'[6]의

---

1 윤석열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2025.1.16.)에서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가 한 말임. 「"헌법 수호 위해 반드시 파면해야" 국회 측 20분에 걸친 헌재 PPT」, 『오마이티비』, 2025.1.16. https://youtu.be/AVqhYgYNKKQ?si=1eRp5JuI-1r6kWlw (접속일: 2025.2.27.)

2 황병주, 「한국의 근현대 광장의 역사」, 『월간 참여사회』, 참여연대, 2009.12.1.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724537 (접속일: 2025.2.27.)

3 오락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김성재, 「오락 커뮤니케이션: '촛불혁명', 분노에서 유희로」 『현대유럽철학연구』 50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167-205쪽.; 2008년 촛불항쟁의 스타일의 정치, 2016년 촛불항쟁에서의 문화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각각 이동연, 「촛불집회와 스타일의 정치」, 『문화/과학』 55호, 문화과학사, 2008, 150-167쪽.; 천정환, 「누가 촛불을 들고 어떻게 싸웠나」, 『역사비평』 118호, 역사비평사, 2017, 449쪽 참고.

4 권김현영, 「촛불에서 응원봉으로의 상징 전환과 광장의 여성정치」, 시국토론회 〈계엄과 시민저항의 사회학적 진단〉, 한국사회학회, 중앙대학교, 2025.2.5.; 천정환, 「'응원봉' 광장정치의 변화과정과 의미」, 연합 연속포럼 〈'계엄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 성균관대BK21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외 주최, 성균관대학교, 2025.2.11.

5 「'우리'의 힘으로 만든 '남태령 대첩'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2024.12.23. http://ijunnong.net/go/index.php?mid=news&document_srl=60892 (접속일: 2025.2.27.)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 공간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던 여의도보다 남태령이 60.6%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광장을 담아내는 토론회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 성미산마을극

농민들이 2024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출발하여 트랙터 상경 행진 시위를 이어왔으나 12월 21일 서울 남태령 고개에 도착하자 경찰이 교통 불편을 명목으로 행진 시위를 폭력적으로 제지했다. 경찰이 트랙터 유리를 깨고 농민을 강제로 끌어내리자 농민들은 '남태령으로 와달라'고 호소했다.[7] 농민들의 부름에 화답하여 도시민들 천여 명이 합류하고 이튿날 아침에 3천여 명까지 늘어나 경찰과 28시간 대치한 끝에 22일 저녁에야 서울 한강진역에서 집회가 성사됐다. 남태령에서 집회가 예정되지 않았던 데다 경찰과 대치가 길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자유발언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동짓날 밤의 강추위 속 허허벌판의 아스팔트에서 경찰의 차벽이 시민들을 앞뒤로 봉쇄한 가운데 물리적 위기가 높았으며 경비계엄의 위험도 있어 남태령의 상황은 아슬아슬했다.

본 논의에서는 남태령 집회의 자유발언에 주목한다. 자유발언·시민발언은 〈시위+축제〉의 형식을 선보인 2008년 촛불문화제에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자유발언은 공개 발화나 대중 연설에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일상의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기를 모았다.[8] 자유발언은 행사 주관자와 수동적 관객으로 분리되는 행사 관례를 탈피하고 남성 중심적인 운동권 문화가 변화하는 가운데 일상어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참여자 중심의 집회 문화를 대변한다. 2024년의 광장에서 자유발언은 보다 질서 있고 정제된 형식으로 진화하여 장년의 남성이든, 여성 청소년이든 3분 안팎의 동등한 시간동안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욕설이나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자제한다는 집회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어[9] 진전된 인권 감수성을 반영한

장, 2025.1.23., 12쪽. 2024,25년 광장정치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2차 남태령 시위(2025.3.25.~26)의 양상은 추후 다루고자 한다.

6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합세한 전봉준투쟁단.

7 엑스(구 트위터) 이용자 '향연(김후주 씨)'과 같은 젊은 여성 농민을 비롯한 온라인사회관계망 이용자들을 통해 소식이 급속히 퍼졌다. 농민들의 행진 시위는 신고된 것으로 불법이 아니었으며 극도의 교통 불편을 초래한 것은 경찰이었다.

8 「촛불집회 최고의 인기폭발 '자유발언'」, 『경향신문』, 2008.6.11. https://www.khan.co.kr/article/200806110331572 (접속일: 2025.2.27.)

9 집회의 주체는 1700개 이상의 시민·민중운동 단체가 연대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다. 집회 초기에 있었던 성차별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고은, 「'휀걸'과

다. 공연과 노래, 춤과 율동을 비롯해서 손팻말(피켓) 들기, 구호 외치기, 응원봉과 깃발 흔들기로 구성되는 'K집회'의 공감각적 향연 속에서 자유발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텍스트에 해당한다. 공개 발화를 통해 집회 참여자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자유발언은 광장정치를 독해하는 데 효과적인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집회는 기술과 감성, 시대정신과 정동의 집약체다. 가까운 역사에서 반복되었던대로[10] 경찰에 의해 농민이 폭력 진압되는 사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바 사건 현장으로서의 남태령은 어떻게 광장으로 바뀌었을까? 해당 물음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2024,25년 광장정치와 남태령 집회를 둘러싼 공시적, 통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촛불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 항쟁의 역사 쓰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태령 집회의 자유발언을 대상으로 하는 본 논의는 동시기의 비평과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한다.[11] 본 연구자는 집회 당시 무박2일동안 남태령 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장의 생중계 영상물을 논의의 기본 자료로 삼는다. 본 논의에서 자유발언을 직접인용하는 경우는 해당 영상 기록물의 재생 시간을 표시하겠다.[12]

'말벌': 초대장에 응답·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121호, 문화과학사, 2025, 121쪽.

10 「양재IC에서 다시 가로막힌 전봉준투쟁단...경찰, 묻지마식 강제 연행」, 『한국농정신문』, 2016.11.26.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007 (접속일: 2025.2.27.)

11 일례로 연속 토론회 참조. 〈연합 연속포럼 1차: '계엄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 성균관대 BK21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외 주최, 성균관대학교, 2025.2.11.; 〈연합 연속포럼 2차: '광장'의 문화정치를 통해 본 다른 사회의 전망과 제7공화국〉, 성균관대BK21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외 주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3.7.;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강북노동자복지관, 2025.1.23.; 〈2025 체제전환운동포럼: 승리하는 광장을 향해〉,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강북노동자복지관, 2025.2.7.

12 유튜브 〈전농tv〉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 〈깡녀티비&안진걸tv〉, 〈미디어몽구&서울의소리〉, 〈황기자tv〉, 〈나두잼〉, 〈촛불행동tv〉 등이 생중계를 했다(〈전농tv〉를 비롯해 11시간 넘게 생중계했던 12월 21일의 밤샘 기록 영상은 유실된 경우가 있음). 남태령 아카이빙에 대한 심포지엄으로 「12.3 비상계엄, 그리고 '남태령'을 기록하다」, 한국외대정보·기록학연구소·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남태령심포지엄팀 공동주최, 한국외대, 2025.3.15.

예정에 없던 집회가 무박2일로 길어지면서 남태령에서는 트랙터와 트럭에 임시 발언대가 꾸려지고 자유발언의 비중은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5,6시간을 기다려서 자유발언대에 올랐다고 했다. 12월 22일 오전 8시부터 자유발언의 순서를 기다렸다는 발언자는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발언대에 올랐다며 너무 떨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집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운동가나 노동운동가들도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군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13]

2008년 촛불시위부터 화제가 된 "평범한 시민들의 자유발언"[14]의 역사 속에서 2024년 자유발언자들의 특징은 젊은 여성들이 눈에 띄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유발언자로 20·30 즉 이삼십대 여성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집회 참여자로 젊은 여성 비율이 높았다는 통계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15] 남태령의 자유발언자들도 열 명 중에 여덟 명은 젊은 여성이라 할 정도로 여성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여성들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독재정권 시절 운동권 문화가 남성 중심으로 짜이고 넥타이 부대가 호명되는 속에서도 여성들은 정치사회적 주체로 존재해왔다. 1970년대의 여성 노동자운동은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87년 민주화투쟁에서도 여성들은 평화시위를 이끈 견인차가

13 이후에 이어진 철야집회인 한남동 집회(2025.1.3.~1.6)와 비교해 남태령 집회에서 활동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참고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주최한 124일간의 집회(2024.12~2025.4.)에서 1000개에 달하는 발언 중 70% 가량이 시민 발언이었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긴급좌담회-12.3 내란 종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 참여연대, 2025.4.9. https://www.youtube.com/watch?v=VfkeUsRH430 (접속일: 2025.4.10.)

14 「카메라에 담긴 촛불혁명 1년의 기록」, 『경향신문』, 2017.10.28. https://www.khan.co.kr/article/201710281513001 (접속일: 2025.2.27.)

15 「7일 여의도 탄핵 집회 28만 명 왔다…가장 많이 나온 세대는 '20대 여성'」, 『경향신문』, 2024.12.12.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443001 (접속일: 2025.2.27.)

됐다.[16] 민주화 이후의 항쟁에서는 10대 여학생이 촉발한 2008년 촛불을 지나 2016년 촛불항쟁에서 여성과 성소수자가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근래에 들어 여성들은 특히 '성평등한 관점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 내용을 진전시켜온 주체'들로 자리매김했다. 여성인권 3법 제정, 여성할당제 도입, 호주제 폐지 그리고 2018년의 미투운동과 디지털성폭력 의제화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행동해왔다.[17] 특히 2015년 페미니즘 운동의 재부상을 배경으로 자신이 겪는 어렴풋한 차별이 구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자기 상황을 언어화할 수 있는 여성들이 늘어난 계기는 여성됨의 연결성을 통해 저항의 가능성을 높여왔다.[18]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세력이 부상한 것도 동시기이다.

정치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과 케이팝 여성-팬덤의 교집합은 촛불의 장엄한 은하수의 풍경을 색색깔의 응원봉 물결로 바꾸었다. 특정 스타나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주체적 수용문화로서의 팬덤은 생산적 소비자(프로슈머) 경제의 변화를 배경으로 자신이 원하는 문화물을 찾아 소비하고 지지하며 가수의 이력과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페미니즘 재부상과 맞물려서 젠더 문제와 관련해 팬덤은 수시로 공론화되어 왔다.[19] 팬들은 응원봉이란 물건을 들고 나옴으로써 더 주목받게 된 것일 뿐 문화정치의 주체로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다."[20]고 말한다.

---

16 8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남성 중심 사업장 주도의 노동운동 구조에서 소규모 경공업 분야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덜 주목받았다. 이옥지,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기획,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23쪽; 우먼타임스, 「시대를 깨웠던 그녀들, 여성운동은 살아있다」, 『오마이뉴스』, 2007.6.13. http://bit.ly/16LTHh (접속일: 2025.2.27.)

17 〈[여성계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4.12.6. https://kwwnet.org/59/?bmode=view&idx=131245313 (접속일: 2025.2.27.)

18 박영민, 「'여성' 집회 전략의 모순적 성공과 역동」,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22, 76-78쪽.

19 김수정, 「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 『언론정보연구』 55권 3호, 2018,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47-86쪽.

20 「"케이팝 팬덤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응원봉에 담긴 빛의 진실」, 『오마이뉴스』,

남태령의 자유발언자들 중에서도 여성의 젠더 경험을 밝히거나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들은 눈에 띄었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거나 "동덕여대가 승리하는 날까지", "나의 숙명(숙명여자대학교)이 세상을 바꾸라고 합니다."는 말은 큰 호응을 받았다.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환호는 여성 혐오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 혐오를 정치의 주요 양분으로 삼아왔다. '나는 목청이 워낙 크다. 남자에게 지지 않고 어른들에게 지지 않는다고 늘 문제가 됐다. 앞으로도 큰 목소리로 살겠다. 어리다, 여성이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인간으로 봐달라.', '페미를 욕하지 마라'고 여성들은 발언했다.

하지만 광장 참여자 및 자유발언자를 여성 청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면적인 것이 여성 청년들 안에서도 여러 개성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발언에 포함된 자기소개가[21]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었다. 주요 발언 주체인 이삼십대 여성들 안에서도 젠더, 성정체성(섹슈얼리티), 학력, 계급, 지역, 장애, 취향, 민족, 이념 등속에 따라 사람들은 나뉘고 섞여 있었다. 성소수자들은 무성애자, 퀴어, 비수술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심지어는 '성소수자일지도 모르는 나' 등속으로 폭넓게 성정체성을 소개했다. 익명의 군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소개하거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들이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사회 현실 때문이다. 처음에는 작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점점 큰 무지개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오게 됐다는 어느 발언자는 배척당하지 않았으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여성과 성소수자들 외에도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밖청소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늦깎이 대학생, 인문계 대학원생, 고졸 직장인으로 소개한 이들은 학력 차별과 겹쳐있는 계급 차별의 현실을 말하거나 암시했다. 경상도 출신의 '이대남(이십대 남성)'이나 '티케이(대구경북)의 딸', '티

2024.12.15. https://omn.kr/2bgmb (접속일: 2025.2.27.)

21 3분 안팎의 자유발언은 민주노총의 시그니처 구호가 된 투쟁을 차용한 인사('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와 자기소개,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마무리 구호("투쟁")로 주로 이루어졌다.

케이의 아들'은 수구정치의 텃밭에서 정치 혁신을 외쳤으며[22] '광주의 딸'은 지역 혐오의 현실을 말했다.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를 공개한 사람들은 장애에 따른 차별을 말했으며, 한국 국적의 중국인은 반중 정서의 폭력을 이야기했다. 민족, 지역, 장애, 지역, 학력, 젠더와 성정체성뿐만 아니라 취향과 직업은 더욱 다양하여 개성은 다채로웠다.

사람들의 자기소개는 성정체성이나 젠더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학력과 계급에 대한 차별,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장애인 혐오, 민족과 인종 차별, 직업 차별, 오타쿠에 대한 무시가 공공연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소수자 혐오는 여성 혐오를 원본으로 확대되어 왔으며[23] 배제되는 소수자들의 목록은 많다. 소수자 혐오의 현실은 휴전 상황에서 냉전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징병제 사회에서 정상적인 남성성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강력하며 정상성이 좁게 구획되어온 역사가 신자유주의의 사회경제 불안과 맞물려 쉽게 혐오의 폭력으로 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정상적 남성성의 표준이 주변화하고 배제한 존재들은 단일하지 않다. 즉 젠더와 성정체성부터 장애와 취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개된 자기 정체성은 특정 범주에 따라 구획·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테면 어느 자유발언자는 '경상도 출신 남성이면서 노동자이고 대학생이며 성소수자일지도 모르는 나'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수구화된 정치색을 대표하는 티케이 출신 남성인 동시에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성정체성의 소유자이며, 대학생이면서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노동자이거나 대학원생-노동자일 수 있는 것이다. 발언자들의 혼재된 정체성은 계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지역, 연령, 장애, 민족, 국가가 교차된 자본주의 억압 구조를 배경으로 한다.

사람들이 지닌 혼재된 정체성이 말해주는 바는 누구나 소수자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적으로 당장의 신체장애 상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22 구미 출신 티케이의 장녀가 '티케이의 콘크리트는 티케이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고 하자 서울 유학생활 중인 18세 고등학생이 '티케이의 아들로서 티케이 콘크리트를 부수겠다'고 호응했다.

23 손희정,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호, 도서출판여이연, 2015, 12-42쪽.

상 행위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만, 누구나 몸과 마음의 크고 작은 장애가 있으며 노화와 더불어 신체장애의 상태는 예정된 것이므로 기실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롭지 않다. 소수자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많은 소수자들이 모여든 남태령에서 환대의 광장이 열린 것은 타인들도 자기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소수자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귀 기울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환대는 사회 안에 있는 타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24] 그래서 마스크에 고드름이 얼 정도의 추위 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소수자도 자유로운 현장이었고, 바로 지금이 봄이라고 느꼈다."[25]

동짓날 허허벌판의 아스팔트 위에서 집회 참여자가 느낀 봄날은 서로의 성원권을 인정하는 환대를 가리키며, 환대의 봄날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수자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었다. 통상의 신상소개를 통해 개인의 직업이나 학벌, 나이 등속이 공개되면 쉽게 위계질서가 형성된다.[26] 하지만 자유발언자들의 자기소개가 다를 수 있었던 까닭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어진 정체성의 요소들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서사를 써나가는 주체의 편집권(저자성)[27]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지켜보는 눈이 되고자 시위에 합류했지만[28] 서로의 소수자성을 확인하며 위안을 주고받았다. 주변화된 존재들의 회합이 처절하거나 엄숙하지 않았던 것은 소수자성

2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07쪽.

25 「[보도자료] 남태령 대첩을 함께한 우리들의 집담회 개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2024.12.28.

26 박영민, 앞의 글, 56쪽.

27 김현경, 앞의 책, 215쪽.

28 "남태령에서 (경찰이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부셨다는 뉴스를 접하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농민 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에 내가 가지 않으면 농민 분들이 다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려갔다." 「[보도자료] 남태령 대첩을 함께한 우리들의 집담회 개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2024.12.28. 이외 남태령에 합류한 계기는 이하 참고(사람들은 계엄령 당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을 보며 학습을 한 이후였으며, 자신에게 응원봉이 소중하듯 농민에게 트랙터가 소중하다는 공감을 지닌 여성 청년들도 있었으며, 농민들과 인적,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을 지닌 많은 존재들을 확인하며 연대의 가능성을 연 덕분이었다.

'내 옆의 사람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라는 어느 발언자의 말이 남태령의 투쟁을 집약한다. 자신이 지닌 생래적, 사회적 속성이 사람을 차별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높이거나 낮추는 차이들이 사소하고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이라는 존엄의 관념을 광장의 사람들은 상호학습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성에 대한 논의로 필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29] 따라서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 정치가 다른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귀결되거나, 공공의 가치를 외면하기 쉽다는 정체성 정치의 취약성을 넘어 남태령 광장은 연대로 나아가는 단초를 보여주었다.

자유발언에서 눈에 띄게 회자된 관용구가 있었다. 인기 관용구는 대통령 탄핵('윤석열 탄핵')이나 쿠데타의 주동자에 대한 법적 조치('내란범 처벌')가 아니라 '차별받는 여성, 성소수자와 노동자, 농민, 이주민,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소수자의 인권을 말하는 데 이주노동자의 인권,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미처 호명되지 못한 모든 약자들"이 덧붙여졌다. 발언자들은 소수자를 대상화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수자성을 말하고 타인의 소수자성을 듣는 말하기와 듣기의 소통을 했다. 사람들은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환대를 경험하는 동시에 다른 소수자를 환대하는 주체자가 됨으로써 광장의 주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집회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경험했으며, 광장에서 호명되지 못한 모든 약자들을 조심스럽게 상상할 수 있었다.

3 인권을 상호학습하는 광장 민주주의

자기의 소수자성을 공개하고 다른 소수자성과 관계하는 광장정치의 정동 속에는 학습과 교육이 전제되어 있었다. 먼저 전봉준투쟁단의 시위에 합류했던 도시

29 김현경, 앞의 책, 204쪽. 존엄은 같은 책, 122쪽.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533쪽.

민들은 농업과 농민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일례로 자신에게 소중한 응원봉을 들고 나왔듯이 농민들이 소중한 트랙터를 갖고 나온 것이라고 하는 발언자가 있는가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과학특성화대 학생으로서 밥그릇을 뺏긴 농민과 연대하러 왔다는 발언자가 있었다. 이들이 보여준 공감의 단초는 구체적인 학습과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었다. 젊은 도시민들에게 농업 교육을 한 주체는 시위 주체인 농민뿐만 아니라 농민과 물적, 인적, 사회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었다. 농업경제학 논문을 쓴다는 대학원생,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진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대학생, 축산업을 전공한 후 졸업하고 귀농을 준비한다는 백수, 아버지가 농부라는 부산의 딸, 부모님이 농민운동을 한다는 시민단체 활동가, 인권동아리 대학생[30]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농민이 배제되어 온 것과 비슷하게 주변화되어 온 목소리들로 농업과 농민, 농촌에 대해 이야기했다.

> 트랙터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몰라요~) 트랙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앙기, 콤바인(을) 다 사려면 집안 거덜라부러요. (…) 그런 상황을 저는 알고 있어서 지금 아주 속이 탑니다. 농기계는 빚을 내서 사든가, 농협에 돈 부셔가며 빌리든가, 남의 집에 부탁을 하든가 그렇게 안 하면 농사를 짓고 시골 바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 저희 아버지가 농사 계속 지으시면서 제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해방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31]

'농민들이 트랙터를 갖고 오는 게 죄입니까', "트랙터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라며 농민의 딸들은 소리 높였다. 농기계가 고가라는 점,[32] 고가의 트랙터를

30 그는 일주일에 걸쳐 상경 중인 트랙터 행진을 보면서 서울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1 12월 22일 13시 50분 발언. https://www.youtube.com/live/ekmNNPDyyfk 동영상 재생 시간은 1시 18분임. 그는 고흥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32 농민 시위를 비난하며 자기 트랙터도 아니고 빌려온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트랙터는 한 대당 1억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라 이를 소유한 농민은 많지 않고,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

엿새에 걸쳐 몰아 상경했다는 것, 농한기에도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바쁘다는 사실, 부모님의 농사가 서울 유학생활의 물리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발언자들은 농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비난했다. 나아가 곡류와 야채, 과일, 고기 등속의 농축수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도시민들이 농민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33] 발언 내용에는 "농민 생존권", "농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농민들의 해방 세상"까지 포함되어 있어 교육 범위가 확대되었다. 짧은 발언 형식에서 발언자들의 농촌 교육은 대개 선언적인 경우가 많아서 충분하지 않았지만 도시민들이 농촌과 농민에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민의 소수자성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개발독재의 수출 경제는 농민들을 저임금의 도시 노동력으로 유입시킨 농촌 몰락을 배경으로 했으며,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 속에서 농업은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희생됐다.

자유발언 시간의 교육은 도시민을 향한 농민 교육에 한정되지 않았다. 교육의 주체와 대상은 분리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상호학습 및 교육의 형태를 띠었다. 이를테면 나이든 농민들은 응원봉을 든 여성 청년들로부터 정체성의 정치를 학습하여 자기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 저는 농민이면서 여성입니다.(와~)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성평등한 문화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은 농민이라도 남성 농민과 여성 농민이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보란 듯이 살고 있지만, 여성 농민에게는 아직도 법적 지위가 제대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농민하면 남성 농민을 많이 떠올립니다. 여기에 여성 농민도 있습니다! 여러분.(와~) 여성 농민은 농업 문제에도 같이 하지만, 또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이라는 주장을 3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 문제는 남성 농민과 같이 하지만 여성 농민의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로 외롭게

현실"이다. 「[보도자료] 남태령 대첩을 함께한 우리들의 집담회 개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2024.12.28.

33 '외국서 생활하니 한국 쌀이 그렇게 그립더라.' '농민을 가로막은 경찰은 쌀 먹지 마라.' 등의 발언이 있었다.

싸우고 있습니다.(아~) 어제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연대는 농촌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여성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준 문화와 (이) 힘은 여기에 참석하신 남성 농민에게도 많은 자각이 되었을 것입니다.(와~) 더욱더 농촌에 내려가서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대해주십시오.(와~) 남성 농민들도 연대해주십시오.(와~) 어제오늘 자유발언에서 귀농을 하고 싶다는 여성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농촌에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십시오. 저희가 든든하고 씩씩한 언니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와~) 그리고 또 조금씩 바꾸어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농촌을 함께 바꾸어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와~)[34]

인용한 여성 농민의 발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바[35] 인용한 후반부는 "저는 농민이면서 여성"이라는 여성 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50대 중반의 여성 농부는 여성 청년들의 정체성 소개 방식을 이어받아서 자기 문제의식을 키우고 완성하며 나아가 인생 선배로서 곁을 내준다. 농촌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농민(이라) 하면 남성 농민"을 가리키는 현실에서 그는 "여기에 여성 농민도 있습니다!"는 알림과 함께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한다.[36] 해당 농민의 발언

34 전여농 신지연 충남 사무처장의 대표발언(12월 22일 14시 35분 발언. https://www.youtube.com/live/ekmNNPDyyfk 동영상 재생 시간은 2시 1분임). 그는 정체성 소개 형식을 빌려 '충남 부여에서 유기농 채소 농사, 토종 쌀과 토종 밀 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이고 전봉준투쟁단이며 BTS 팬 아미'로 자기소개했다.

35 그는 발언의 전반부에서 농업을 주변화했던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여태까지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농업을 생각해준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윤석열입니다." 그는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주는 것처럼 양곡관리법을 호도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의 농민 혐오 조장에 대해서는 이오성, 「양곡법 거부,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걷어찼다」, 『시사인』, 2023.4.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46 (접속일: 2025.2.28.)

36 "부부가 함께 농사를 하더라도 생산물의 소유주나 거래 주체 명의는 남편 명의로 사용하는 현실이다." 전여농 이춘선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보도자료] 남태령 대첩을 함께한 우리

전에 어느 젊은 여성 발언자가 귀농을 계획한다고 말했던 바, 그는 농민이자 여성으로서 여성 귀농 희망자에 대해 선배가 되겠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저희가 든든하고 씩씩한 언니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위나 연령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고정되기 쉬우나 광장의 교육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남태령 이후 한남동에서 열린 광장(2025.1.3.~1.5)에서도 상호학습의 양상은 이어졌다. “40대 개저씨”로 자기소개한 배달노동자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들에 대해 지식이 짧은데 많이 배웠다고 말했으며, 민주노총 남성 간부는 많이 지쳐있었는데 운동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웠다며 “응원봉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교육은 일방향이지 않고 양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켜보았던 수만의 사람들까지 포함된 다매체 환경을 감안하면 교육과 학습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남태령의 자유발언대에 오른 어느 시민단체 활동가는 16년간 사회운동을 하며 더딘 변화에 지쳐왔는데 힘을 받았다며 어리거나 젊은 응원봉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런가하면 ‘나는 미성년자 이전에 국민이고, 내가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국민이라서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어느 여고생의 발언은 기성세대를 교육하고 각성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다.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가 됐다.

자유발언을 통한 상호교육은 공시적인 동시에 통시적이었다. ‘불과 8년 전에 총과 칼이 아니라 물로 사람이 죽은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발언자는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2016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말하면서 보다 안전한 현재의 시위 환경이 과거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발언자의 말대로 물대포가 엄격하게 제한되고[37] 45년 만에 계엄령이 발동된 민주주의의 위기 국면에서도 쉽게 공안정국이 조성되지 못하는 배경이 있다. 2015년 물대포를 직격 살수하며 농민 시위대를 살인 진압했던 역사를 비롯해 2008년 서울의 대로에 컨테이너 장벽(‘명박산성’)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비롯해 곤봉과 방패를 동원해 촛불집회를 유혈 진압했던[38] 역사에 현재는 빚져 있다.

들의 집담회 개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2024.12.28.

37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오마이뉴스』, 2020.4.23. https://omn.kr/1nf6j (접속일: 2025.2.27.)

38 「80년대식 진압 ‘화려한 부활’, 피흘린 촛불」, 『한겨레』, 2008.6.28. https://www.hani.

가까운 역사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항쟁의 역사를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총구 앞에 얼어붙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에게 빚지고 80년 광주에 빚을 졌다.'고 어느 젊은 여성 발언자가 말했다. 보다 당당한 스무 살은 '90년대 화염병을 던졌다는 아버지, 광주항쟁에 있었던 어머니를 대신해서 언니와 내가 이 광장에 왔다.'고 발언했다.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는 물음을 던졌던 한강 작가의 문제의식에 응답한다면, 유혈 투쟁을 치러야했던 야만의 역사가 현재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2024년의 불법 계엄령 앞에서 사람들은 1980년 광주를 소환할 수 있었다.: "그날의 광주는 정말 외로웠겠구나.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39] 2024년 12월 3일, 수천의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무장 군인의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던 것, 1980년의 계엄군과 달리 2024년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군인들이 시민들 앞에서 머뭇거렸던 것, 장교 아들에게 전화해서 계엄령 소식을 알리며 절대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고 울먹였던 어느 아버지의 모습은[40] 모두 80년 광주의 학살에 빚진 현재의 모습들이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는 일은 다시금 현재가 과거를 구하는 일과 통한다. 즉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일은 다시금 과거에 의미부여하는 일이 된다. 80년 5월의 광주항쟁은 아직도 헌법 정신으로 수록되지 못했으며 사회문화적인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피로 쓰인 역사를 글과 사진으로만 봤는데 당연한 것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41]는 집회 참가자의 말은 2024년의 한국 민주주의가 빚진 역사의 유산을 환기하는 동시에 민주화의 진행을 가로막아온 냉전-독재-수구-엘리트 지배동맹이 진화해온 역사적 현실 역시 일러준다. 그래서 민

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5916.html (접속일: 2025.2.27.)

39 계엄령 뉴스에 달린 댓글을 직접인용함.

40 계엄령 당일 전방 부대에 있는 장교 아들에게 전화한 어느 아버지의 통화가 보도됐다. 「"민간인 공격 안 돼!" 당부한 장교 아버지‥'해제 안 됐으면 어쩔뻔'」, 『MBC』, 2024.12.6.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4221_36515.html (접속일: 2025.2.27.)

41 한남동 집회(2025.1.5.) 자유발언자의 말.

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왜 허약한지를 묻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의 '장갑차' 대 농민들의 '트랙터'[42]는 남태령의 투쟁 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은 장갑차로 상징되는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으며, 냉전 사회의 수구 엘리트 동맹은 계엄을 옹호하며 자신의 정치경제적 생명을 잇고자 한다. 이들이 반공 독재 세력의 연장선에 있다면 트랙터가 가리키는 바는 그 반대편에 있다. 트랙터는 농사를 위해 땅을 갈아엎는 기계로, 지배 권력의 폭정을 갈아엎은 민중의 역사를 가리킨다. 민중 항쟁의 역사는 80년 광주를 거슬러 올라가 130년 전 동학농민혁명을 가리킨다. "남태령은 2024년의 우금치"(22일 10시 남태령의 기자회견)이다. 1894년 공주의 우금치에서 1만여 농민이 조선 관군과 일본군에게 피흘리며 쓰러졌던,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불꽃이 된 우금치의 역사와 달리 남태령의 '전사'들은 이겼다. 성별도 세대도 지향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하나로 연결된 대동의 남태령을 열어냈다고 전봉준투쟁단은 밝혔다. 전봉준투쟁단은 "혐오와 차별 속에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도시 빈민, 농민이 만든 승리"[43]로 남태령의 시간을 기록했다.

남태령의 승리는 28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의 차벽 철수를 이끌어내고 용산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경험에 기반한 것이며, 해당 승리는 여성과 성소수자, 농민, 노조(특히 민주노총) 조합원 등 모두가 연대해 시민 되기의 투쟁을 벌인 결과였다. 의료면 의료, 노래면 노래의 재능으로 사람들은 남태령 현장에 합세하고 후원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수만 명이 접속해 함께 했다. 무박2일 내내 남태령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졌던 구호는 '차 빼라' 즉 경찰은 차벽을 해체하고 행진 시위를 이어가게 하라는 것이었다. 22일 오전 7시 반 마침내 첫 차가 개통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남태령에 합류하자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사람들은 외쳤다. 결국 경찰의 차벽이 해체되고 22일 저녁 6시 한강진역에서 해산 집회를 열었을 때 서울

42 2025.12.22. 오전 10시 남태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혁주 전농 사무총장이 한 말임.

43 「'우리'의 힘으로 만든 '남태령 대첩'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2024. 12.23. http://ijunnong.net/go/index.php?mid=news&document_srl=60892 (접속일: 2025.2.27.)

시민들은 농민들의 트랙터를 뜨겁게 환영했다. 그래서 무박2일 남태령의 시간을 두고 붙여진 '남태령 대첩'이라는 명명은 공감과 연대의 승리를 가리킨다. 큰 사고 없이 당면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으며,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이 연대하여 정치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임을 확인하고 시민권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을 소리 높였다. 농민운동이 시민과 결합하면서 민중운동이 확장되는 양상은, 시민으로 통칭되지만 정치사회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이 시민 되기를 위해 연대 투쟁하는 양상을 보여준다.[44]

소수자들의 정체성 정치는 트랙터의 민중 역사와 접속하면서 연대를 통해 확장된 민주주의를 외친다. 누구나 지닌 소수자성을 학습하고 환대하는 광장의 목소리는 민주주의를 가리키고 있으며 광장 민주주의의 정체는 인권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2016년 촛불항쟁이 국민 주권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24년의 항쟁은 국민국가의 배타적 주권을 넘어 보편적 인권으로 확장됐다. 인권은 보편적이라고 해서 초역사적인 도덕규범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화의 권리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다. 권리가 억압되거나 박탈당한 이들이 다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점에 인권이 있다.[45] 인간 보편에 주어져야 할 권리인 인권은 비본질적인 차이를 넘어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존엄을 전제한다. 45년 만에 군사반란이 획책된 위기 속에서 광장의 인권 요청은 한가롭게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의반의 인권[46]이 주어져온 70년 휴전의 역사를 환기한다면 광장의 인권 투쟁은 가장 급진적이며 일상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는 나중에'[47]라는 소외의, 미완의 8년 전 촛불혁명은 이제 각양각색의 빛(응원봉)과 바람(깃발)이 요구하는 진전된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

44 권창규, 「무지개 색깔 동지들의 기억 투쟁」, 『문화/과학』 121호, 문화과학사, 2025, 145쪽.

45 정정훈, 『불온한 인권』, 후마니타스, 2025, 11쪽.

46 '반의반의 주권'(김동춘,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2020, 334-335쪽)을 '반의반의 인권'으로 바꾸어 썼다.

47 「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12.13. https://equalityact.kr/241214-3/ (접속일: 2025.2.27.)

4 결론: 남태령 광장의 연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항쟁으로 기록된 2008년 이명박 정권 하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이은 2024, 25년의 항쟁은 촛불항쟁의 연장선에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열린 광장에서 서울 남태령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발언을 살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광장정치 속에서 남태령 집회는 남태령대첩이라 명명될 만큼 뚜렷한 연대의 시발점으로 남았다.

본고는 2024년의 광장정치와 남태령 집회의 공시적, 통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유발언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발언의 주체와 형식, 내용을 논의했다. 여느 집회와 마찬가지로 자유발언의 주체로 여성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겪은 청년 세대가 광장으로 나왔다고 설명되기에 부족하다. 제도권 정치의 젠더가 장년 및 노년의 남성으로 채워진 것과 달리 여성들은 성평등한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해온 정치사회적 주체로서 연대, 행동해왔으며, 정치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과 교집합을 이루는 케이팝 여성-팬덤의 생산적 소비자들과의 만남은 폭발력 있는 화학작용을 보여준다.

남태령의 자유발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됐던 관용구, '차별받는 여성, 성소수자와 노동자, 농민, 이주민,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바란다.'가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광장의 요구는 인권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정체성 정치에서 출발하여 농민을 비롯한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양상은 특징적으로, 인정 투쟁만으로 귀결되거나[48] 다른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귀결되기 쉬운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나아가 보편의 인권과 존엄을 말하는 과정은 집회 현장에서부터 존중해서 말하고 듣고자 하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환대의 즐거움과 연대의 가능성을 높였다. 자기의 소수자성을 공개하고 다른 소수자들과 관계하는 광장정치의 정동 속에는 학습과 교육이 전제되어 있었다. 교육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아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호의존의 관계성

48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문성훈 역, 『분배냐, 인정이냐?』, 사월의책, 2014, 16쪽 참고.

에 대한 교육 및 학습 내용은 공시적, 통시적으로 걸쳐 있었다. 교육 및 학습이 지닌 상호방향성은 다매체의 기술적 환경에서 온라인으로도 구현되어 확장되었다. 사람들은 남태령 광장의 연대를 기억하며 이후 현실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 같이 연대하던 남태령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남태령 대첩 이후 전장연 시위에 많은 시민들이 연대한 모습도."[49] 무박2일간의 남태령의 광장정치는 확장되어 이후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현실 연대와 후원으로 이어졌다.[50]

남태령에서 가장 많이 울려퍼진 구호는 '차 빼라!'였다. 즉 경찰은 차벽을 치워 행진 시위를 막지 말라는 요구를 담은 세 글자 구호는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와 탄핵, 내란 세력 해체를 말하는 여느 구호와 비교했을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시에 확장적이다. 해당 구호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파괴하겠다는 독재 세력의 준동 속에서 배타적 국민주권을 뛰어넘는 인권을 말하는 가장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반영한다. 광장의 말은 민주주의를 가리키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내용을 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87년 민주화를 갱신하는 보다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요청한다. 남태령 광장을 필두로 한 2024,25년의 응원봉-빛과 깃발-바람의 집회는 휴전 사회의 양당 구도에서 반복된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해왔던 광장정치의 가능성을 발전적으로 잇고 있다. 자본주의적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급을 비롯해 젠더와 섹슈얼리티, 지역, 장애, 연령, 민족과 인종을 교차하는 억압의 역사 속에서 주변화되어 온 것은 인간 존재에 한정되지 않는다. 타자화된 대상에는 자연이 포함되어 있어 기후악화의 현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광장 민주주의의 인권 투쟁은 좀 더 푸르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51]

---

49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광장을 담아내는 토론회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 성미산마을극장, 2025.1.23., 12쪽

50 「광장과 남태령에 넘쳐흐른 '연대'···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가닿다」,『경향신문』, 2024. 12.2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1354001 (접속일: 2025.2.28.)

51 "기후정의는 우리가 살아갈 '다른 세계'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공통 토대". 2025년 2월 8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의 표제어 중 하나다.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윤석열 끝내러 기후정의가 간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외 주최, 광화문, 2025.2.8.

참고문헌

기본자료

유튜브 전농tv(남태령 집회, 2024.12.22.) https://www.youtube.com/live/ekmNNPDyyfk

유튜브 미디어몽구(남태령 집회, 2024.12.21.) https://www.youtube.com/watch?v=_3Eqy6V2j78

유튜브 황기자(남태령 집회, 2024.12.21.~22일 아침) https://www.youtube.com/watch?v=qauZk3JnRh0

단행본

김동춘,『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2020, 334-335쪽.

김현경,『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04-215쪽.

이옥지,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기획,『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23쪽.

정정훈,『불온한 인권』, 후마니타스, 2025, 11쪽.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문성훈 역,『분배냐, 인정이냐?』, 사월의책, 2014, 16쪽.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533쪽.

논문

권창규,「무지개 색깔 동지들의 기억 투쟁」,『문화/과학』121호, 문화과학사, 2025, 133-149쪽.

김성재,「오락 커뮤니케이션: '촛불혁명', 분노에서 유희로」50호,『현대유럽철학연구』,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167-205쪽.

김수정,「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언론정보연구』55권 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47-86쪽.

박영민,「'여성' 집회 전략의 모순적 성공과 역동」,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22.

손희정,「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여성이론』32호, 도서출판여이연, 2015, 12-42쪽.

이동연, 「촛불집회와 스타일의 정치」, 『문화/과학』 55호, 문화과학사, 2008, 150-167쪽.
정고은, 「'휀걸'과 '말벌': 초대장에 응답·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121호, 문화과학사, 2025, 116-132쪽.
천정환, 「누가 촛불을 들고 어떻게 싸웠나」, 『역사비평』 118호, 역사비평사, 2017, 436-465쪽.

기타자료

권김현영, 「촛불에서 응원봉으로의 상징 전환과 광장의 여성정치」, 시국토론회 〈계엄과 시민저항의 사회학적 진단〉, 한국사회학회, 중앙대학교, 2025.2.5.
「광장과 남태령에 넘쳐흐른 '연대'···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가닿다」, 『경향신문』, 2024.12.2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1354001 (접속일: 2025.2.28.)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긴급좌담회-12.3 내란 종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 참여연대, 2025.4.9. https://www.youtube.com/watch?v＝VfkeUsRH430 (접속일: 2025.4.10.)
「"민간인 공격 안 돼!" 당부한 장교 아버지‥'해제 안 됐으면 어쩔뻔'」, 『MBC』, 2024.12.6.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4221_36515.html (접속일: 2025.2.27.)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윤석열 끝내러 기후정의가 간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외 주최, 광화문, 2025.2.8.
「[보도자료] 남태령 대첩을 함께한 우리들의 집담회 개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2024.12.28.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오마이뉴스』, 2020.4.23. https://omn.kr/1nf6j (접속일: 2025.2.27.)
「양재IC에서 다시 가로막힌 전봉준투쟁단 ... 경찰, 묻지마식 강제 연행」, 『한국농정신문』, 2016.11.26.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007 (접속일: 2025.2.27.)

〈[여성계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4.12.6. https://kwwnet.org/59/?bmode=view&idx=131245313 (접속일: 2025.2.27.)

〈연합 연속포럼 1차: '계엄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 성균관대BK21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외 주최, 성균관대학교, 2025.2.11.

〈연합 연속포럼 2차: '광장'의 문화정치를 통해 본 다른 사회의 전망과 제7공화국〉, 성균관대BK21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외 주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3.7.

「'우리'의 힘으로 만든 '남태령 대첩'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2024.12.23. http://ijunnong.net/go/index.php?mid=news&document_srl=60892 (접속일: 2025.2.27.)

우먼타임스, 「시대를 깨웠던 그녀들, 여성운동은 살아있다」, 『오마이뉴스』, 2007.6.13. http://bit.ly/16LTHh (접속일: 2025.2.27.)

「'우리'의 힘으로 만든 '남태령 대첩'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2024.12.23. http://ijunnong.net/go/index.php?mid=news&document_srl=60892 (접속일: 2025.2.27.)

「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12.13. https://equalityact.kr/241214-3/ (접속일: 2025.2.27.)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광장을 담아내는 토론회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 성미산마을극장, 2025.1.23.

이오성, 「양곡법 거부,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걷어찼다」, 『시사인』, 2023.4.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46 (접속일: 2025.2.28.)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강북노동자복지관, 2025.1.23.

천정환, 「'응원봉' 광장정치의 변화과정과 의미」, 연합 연속포럼 〈'계엄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 성균관대BK21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외 주최, 성균

관대학교, 2025.2.11.
「촛불집회 최고의 인기폭발 '자유발언'」, 『경향신문』, 2008.6.11. https://www.khan.co.kr/article/200806110331572 (접속일: 2025.2.27.)
「카메라에 담긴 촛불혁명 1년의 기록」, 『경향신문』, 2017.10.28. https://www.khan.co.kr/article/201710281513001 (접속일: 2025.2.27.)
「"케이팝 팬덤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응원봉에 담긴 빛의 진실」, 『오마이뉴스』, 2024.12.15. https://omn.kr/2bgmb (접속일: 2025.2.27.)
「"헌법 수호 위해 반드시 파면해야" 국회 측 20분에 걸친 헌재 PPT」, 『오마이티비』, 2025.1.16. https://youtu.be/AVqhYgYNKKQ?si=1eRp5JuI-1r6k-Wlw (접속일: 2025.2.27.)
황병주, 「한국의 근현대 광장의 역사」, 『월간 참여사회』, 참여연대, 2009.12.1.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724537 (접속일: 2025.2.27.)
〈2025 체제전환운동포럼: 승리하는 광장을 향해〉,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강북노동자복지관, 2025.2.7.
「7일 여의도 탄핵 집회 28만 명 왔다…가장 많이 나온 세대는 '20대 여성'」, 『경향신문』, 2024. 12. 12.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443001 (접속일: 2025.2.27.)
「12.3 비상계엄, 그리고 '남태령'을 기록하다」,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남태령심포지엄팀 공동주최, 한국외대, 2025.3.15.
「80년대식 진압 '화려한 부활', 피흘린 촛불」, 『한겨레』, 2008.6.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5916.html (접속일: 2025.2.27.)

Abstract

The Fight for Human Rights of the Namtaeryeong Protests

Kwon, Changgyu(Chosu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politics of public square during the president Yoon Seok-yoel impeachment and discussed the free speech at the Namtaeryeong protest. The demonstration, a united front of farmers and city dwellers, marked a historic win for the farmers' movement and a pivotal moment for public square politics in 2024. Through the analysis of free speech, the study investigated how identity politics forges solidarity with oppressed minorities, including farmers, instead of becoming isolated. One of the common phrases in free speech was, 'We desire a society that ensures the human rights of marginalized women, LGBTQ+ individuals, laborers, agricultural workers, migran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narrowly defined 'normal' masculinity within South Korea's conscription system, when combined with neoliberal socioeconomic anxieties, readily transforms into hateful violence." As martial law jeopardizes even the most basic democratic processes, public square politics more expansive and profound democracy rooted in human rights.

Key words: Namtaeryeong protest, politics of public square, free speech, identity politics, human right, democracy

논문제출 / 2025.03.01.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